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길태숙*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캐릭터가 작품 내적인 서사적 기능에 한정된 존재가 아닌 무한한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제주도 본풀이 중 <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에 등장한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과양생이 처를 대상으로 악인형 여성인 캐릭터의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과양생이 처가 갖는 전형적 악행의 성격은 탐욕, 유혹, 거짓, 살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서사 내에서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은 그녀가 상대인에 대응하는 적대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면, 과양생이 처의 악행은 무질서, 혼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복을 통한 불완전한 변신, 다수의 하찮은 생물의 집합체, 권모술수 등의 서사를 통해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다중적 자아를 지닌, 상대자의 성격에 맞춰 다양한 악행을 범할 수 있는 캐릭터 이미지를 형성한다. 과양생이 처는 삼형제의 가짜 어머니, 저승왕인 염라대왕의 이승행차를 통해 정치될 수밖에 없는 서사를 통해 풍요로움을 방해하고 무질서, 혼돈을 창출하는 캐릭터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핵심어: 문전본풀이, 차사본풀이, 악인형 캐릭터, 노일제대귀일의 딸, 과양생이 처, 원형 캐릭터, 악행, 변신, 그림자

* 상명대

차례

1. 머리말
2.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전형적 성격: 탐욕, 유혹, 거짓, 살인
3. 서사 과정에서의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성격
4.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시각적 이미지
5. 맺음말

1. 머리말

이 논문의 관심의 초점은 악인형 여성신 캐릭터에 있다. 제주도 무속 신화 중에서 악인형 캐릭터는 많지 않지만 <문전본풀이>에서의 노일대제귀일의 딸,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 처, <이공본풀이>에서의 김장자, <초공본풀이>의 삼천선비, <천지왕본풀이>의 수명장자 등이 있다. 이 중 여성 캐릭터는 <문전본풀이>에서의 노일대제귀일의 딸과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 처이다. 이러한 악인형 캐릭터의 대부분은 본풀이의 주요신의 대립자로 나타나며 유형적 공통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각각의 서사 안에서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유의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캐릭터의 악행은 남성 캐릭터의 악행과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며, 여성캐릭터의 악행도 캐릭터가 처한 환경이나 특수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현재까지 신화에서의 신에 대한 연구는 주인공 신에 대한 연구가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악인형 캐릭터는 서사 내에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주인공과 대립적 위치에서 서사를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주목받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악은 재되고 수정되어야 할 어떤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발전과 개선의 과정

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악인형 캐릭터의 행위와 악행의 강도가 서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악인형 캐릭터에 대한 연구는 악인형 인물이 서사 내에서 기능한다는 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캐릭터들은 조연이든 주연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서사 내에서의 기능과 관계없이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캐릭터 자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캐릭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악인이나 선인이나가 아니라 어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냐는 것이다¹⁾.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캐릭터란 ‘1)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 2)소설, 만화, 극 따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 장난감이나 문구, 아동용 의류 따위에 많이 쓴다²⁾’의 의미로써 정의된다. Wikipedia에 의하면 캐릭터(Character)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단어로서 이 중 예술 부분에 한정된 의미를 살펴보면, ‘A character is any person, persona, identity, or entity that exists in a work of art. Characters may be entirely fictional or based on real, historical entities. Characters may be human, supernatural, mythical, divine, animal, or personifications of an abstraction³⁾’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캐릭터는 예술 작품의 내적 세계 안에

1) 이정원, 「해악적 악인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서사적 접근」, 『고소설연구』 23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153-175쪽.

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3) [http://en.wikipedia.org/wiki/Character_\(arts\)](http://en.wikipedia.org/wiki/Character_(arts))

캐릭터는 예술 작품 안에 있는 인물, 퍼소나, 아이덴티티, 혹은 어떤 존재이다. 캐릭터는 완전 허구이거나 실제 혹은 역사적 존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물, 초자연, 신적 존재, 동물, 추상화된 의인체 등이 있다.

등장하는 존재이면서 작품 외적 세계에서도 생존 가능한, 시각적 혹은 청각적으로 표현되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앤드류 호튼은 캐릭터에 대해 하나의 완성된 생산품이라기보다 과정(Pross)과 담론(Discours)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 곧 캐릭터란 다성성(Polyphonic)을 지닌 존재로써, 하나의 문화에 속하고 그 문화의 많은 목소리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담론의 일종으로 그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진행형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캐릭터란 플롯을 위한 단순한 기능 요소가 아니며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성 과정을 수반하는 다수의 목소리들의 교차과정을 의미한다는 바흐젠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캐릭터는 작가의 의지를 대변하는 정체된 존재가 아닌 캐릭터(Character), 환경(Circumstance), 기회(Chance)의 교차과정을 통해 가능성과 생성의 무한한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캐릭터는 서사내의 스토리의 제한을 받기도 하지만 서사 밖으로 나와 다양한 스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력을 갖고 활동하는 존재이며, 제공된 환경과 기회에 따라 다양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캐릭터가 작품 내적인 서사적 기능에 한정된 존재가 아닌 무한한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적, 다성적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고 제주도 본풀이⁵⁾에서의 악인형 여성신 캐릭터의 이미지에 대

4) 앤드류 호튼, 주영상 옮김,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 쓰기』, 한나래, 2000, 54-108쪽.

5) 赤松智誠, 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 上, 조선총독부, 1937.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위의 4권에 실려 있는 이본 중 무속의례 진행 전체가 채록 정리되어 있어 완성도 높은 제주도 본풀이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 본 큰 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28-29쪽) 현용준의

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원형 캐릭터의 성격과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미래 산업의 수요와 창작에 경쟁력을 부과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전형적 성격: 탐욕, 유혹, 거짓, 살인

캐릭터가 과정적이고 다성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전형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신화에서 보이는 일련의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전형적 특징에 대한 검토가 예술 작품에서의 여성 악인형 캐릭터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를 유혹하여 그의 전 재산을 빼앗고, 남선비의 부인인 여산부인을 죽이고 그의 자식들까지 죽이려 하다가 막내인 녹다생인에게 들통이 나서 측간에 가서 목을 매어 죽고 마침내는 측간신 측도부인으로 좌정하는 신이다.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측간신이기는 하나 신으로 좌정하는 특별한 존재이다. 본풀이에서는 구체적으로 측간신이 된 후의 그녀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과거 그녀의 행동을 통해 고상하지 않은, 조금은 추악하다고 할 수 있는 측간신의 성격을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측간신의 고약한 위협에서 피하기 위해 측간에 갈 때에는 셋이나 다섯 보 앞에서 귀신이 놀라지 않도록 기척을 내라고 주의하기도 하고, 집을 나서거나 들어올 때 측간신에게 안전을 비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⁶⁾.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濟州道巫俗資料事典』을 바탕으로 <문전본풀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다른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6) 김재용, 「<문전본풀이>의 무속 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제22집,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04. 3. 89쪽.

이>의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가난하게 살면서 아들 일곱을 낳았다.
- 2) 가난하여 도저히 일곱 아기를 키우며 살 수 없게 되자 여산부인은 남선비에게 장사를 제안하고 남선비는 배를 마련하여 장사를 하기 위해 오동나라로 갔다.
- 3)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남선비를 유혹하여 그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도록 하였다.
- 4) 남선비는 남은 재산이 없자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초막에서 지냈는데, 눈까지 멀게 되었다.
- 5) 여산부인은 3년 동안 남편에게 소식이 없자 그를 만나러 오동나라로 갔다.
- 6) 여산부인은 아이의 새쫓는 노래를 듣고 남편의 거처를 찾았다.
- 7) 남선비는 여산부인이 차려준 밥을 먹고 부인이 찾아왔음을 알고 부부가 다시 헤어졌다.
- 8)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을 형님이라 부르고 거짓 대접하고 목욕할 것을 제안하여 큰부인을 물속에 밀어 넣어 죽이고 여산부인인 채하며 남선비와 집으로 돌아왔다.
- 9) 부부가 집에 도착하자 녹디생인은 처음부터 어머니가 아님을 알고 다른 아들들도 차차 어머니가 아님을 눈치 채게 되었다.
- 10)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배가 아파 죽는 시늉을 하여 남편이 문복을 하게 만들고 스스로 집쟁이로 가장하여 일곱 아들의 애를 먹어야 한다는 집을 쳐주었다.
- 11) 남선비가 칼을 갈아 아들들을 죽이려 하자 녹디생인이 자신이 직접 형을 죽여 애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형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가 산돼지 6마리를 잡아 애를 내어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가지고 갔다.
- 12)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애를 먹는 척 하다 자리 밑으로 숨기고 이를 엿

본 녹디생인은 그녀의 행위가 거짓임을 폭로하고 여섯 형제들이 달려들었다.

13) 노일제대귀의 딸은 측간으로 도망가 죽고 남선비는 도망가다 올래목에 걸려 죽었다. 형제들은 노일제대귀의 딸의 시체를 찢어 버렸는데 많은 생물로 변화였다.

14) 형제는 서천꽃밭에서 도환생꽃을 얻어 못에서 어머니를 찾아 살려내었다.

15) 녹디생인은 살아난 어머니를 조왕신으로 좌정케 하고, 아버지는 올레주목정쌀지신으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간신으로 좌정케 하였다. 나머지 형들은 오방장군으로 여섯째 형은 뒤편전으로 좌정케하고 자신은 일문전이 되었다.⁷⁾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은 남선비를 유혹한 것에서부터 비롯한다. 처음 남선비를 유혹한 이유는 그가 장사하기 위해 배에 싣고 온 재산에 탐이났기 때문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유혹하고,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일삼으며, 중국에 가서는 살인을 저지르고 또 다른 살인을 계획한다. 노일제대귀의 딸이 남선비를 만나 유혹하고 가산을 탕진케 하는 내용은 채록된 이본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그를 피어 모든 재산을 빼앗은 것에는 다르지 않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첩이 되어 남선비의 돈을 빼앗거나⁸⁾ 아양을 떨며 그를 유혹한 뒤 혹은 그를 그녀의 숙소로 데리고 가서 노름으로 돈을 빼앗고⁹⁾ 아니면 음식값으로 돈을 축내게 만들거나¹⁰⁾ 꼬여 남선비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산을 탕진케 한다¹¹⁾. 남선비의

7) 현용준, 앞의 책, 1980, 398-415쪽.

8) <문전본풀이>, 박봉춘본, 적송지성, 추엽옹, 앞의 책. 이후 '박봉춘본'이라 함.

9) <문전본풀이>, 안사인본, 현용준, 앞의 책. 이후 '안본'이라 함.

<문전본풀이>, 고대중본, 장주근, 앞의 책. 이후 '고본'이라함

<문전본>, 박남하본, 진성기, 앞의 책. 이후 '박남하본'이라 함.

본처인 여산부인이 왔을 때에는 목욕을 하자고 속여 그녀를 물속에 밀어 넣어 죽여 버린 후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여산부인인 체 가장한다. 여산부인을 살해하고 여산부인인체 가장하는 노일제귀일의 딸의 행위는 <문전본풀이> 이본마다 나타난다. 남선비를 속여 남선비의 고향에까지 따라온 후에도 일곱 아이들에게는 친어머니인 척하고, 일곱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아픈 척하고, 점쟁이로 가장하여 일곱 아들의 애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짓 문복을 쳐주는, 그치지 않는 거짓 행위 또한 모든 본에서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대해 이수자는 재산을 탐내 다른 여자의 남편을 유혹하고, 그 남자의 본부인을 물 속에 집어넣어 죽일 뿐 아니라 전처 소생의 일곱 아들을 죽이려고 꾀병을 앓아 아이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자식까지 죽이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신화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악인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였다¹²⁾. 이지영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을 1) 남선비의 온전한 가정 질서와 평화를 파괴한다 2)남선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의 삶을 파괴한다 3) 본처를 살해하고 전처 자식의 일곱 아들마저 죽이려 한다라고 정리하고, 부정적인 악인형 여성상의 모습이 1)노름 잘 하고 춤 잘 추는 유희형 여성 2)남성에게 아양떨고 유혹할 줄 알며 애정에 적극적인 여성 3)가정 살림하고 거리가 먼 여성 4)속임수에 능하며 모든 일에 용의주도한 여성 5)본부인을 죽이고 전처소생을 죽이려하는 냉혈적인 여성으로 형상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¹³⁾.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은 탐욕에서 비롯된 그치지 않는 거짓, 여성성을 이

10) <문전본>, 이춘아본, 진성기, 위의 책. 이후 ‘이본’이라 함.

11) <문전본>, 신명옥본, 진성기, 위의 책. 이후 ‘신본’이라 함.

12)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282-288쪽.

13)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199-233쪽.

용한 유혹, 중독적 소비, 살해, 가짜 어머니 행세와 여섯 형제에 대한 살인 계획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주체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유혹자, 살인자, 속임수에 능한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사본풀이>에 등장하는 과양생이 처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버무왕의 세 아들을 살해한다. <차사본풀이>는 강림이 어떻게 저승의 차사로 좌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본풀이인데, 과양생이 처는 강림이 저승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한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차사본풀이>의 내용을 과양생이 처가 등장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버무왕의 일곱 아들 중 세 아들이 단명할 것을 알고 동개남절에 가서 3년간 공양을 드려 이를 막아보려고 한다.
- 2) 버무왕의 세 아들은 3년이 되어 대사님이 내어주는 명주와 비단 9필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다 과양땅에 이르러 배가 고파 과양생이 집에 들어가 음식을 청한다.
- 3) 과양생이 처는 음식을 청하는 형제의 청을 거절하다가 막내의 청을 듣고 개밥주는 그릇에 식은밥에 물을 말아 주었다.
- 4) 밥을 먹은 대가로 명주와 비단 9자를 과양생이 처에게 주자 이를 본 과양생이 처가 욕심이 나서 공손히 형제들을 사랑방에 맞아 들어 술과 음식을 후히 대접하였다.
- 5) 과양생이 처는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세 형제를 죽이고 남편과 함께 주천강 연못에 수장하였다.
- 6) 7일 후 과양생이 처는 동정을 살피러 연못에 갔는데 물 위에 핀 세 송이 꽃을 발견하고 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 문, 뒷문, 대청기둥에 걸어두었는데, 다닐 때마다 머리를 긁어서 화로에 던져 태워버렸다.

- 7) 불을 빌리러 온 청태할멈이 화로 안에서 세 개의 구슬을 찾아내니 과양생이 처는 그것을 자기 것이라 하고 빼앗아 삼켰는데, 이에 태기가 있어 아들 삼 형제를 낳았다.
- 8) 삼형제는 매우 충명하였고, 성장하여 장원급제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인 과양생이 처에게 절을 하고 모두 한 날 한 시에 죽어 버렸다.
- 9) 과양생이 처는 김치 원님에게 삼형제가 죽은 원인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소지를 올리기를 100일이 되어갔는데, 마침내는 원님에게 옥을 하기 시작하였다.
- 10) 원님은 처와 18 첩을 둔 관장 강림을 불러 이 사건을 해결할 염라대왕을 잡아 오라고 하였다.
- 11) 강림에 의해 동천 마당에 온 염라대왕은 과양생이 부부가 삼형제를 죽인 것을 밝힌 후 연못에 수장되었던 삼형제를 살려 집으로 돌려 보냈다.
- 12) 염라대왕은 소 아홉 마리를 과양생이 부부의 팔다리에 묶어 9조각을 내어 죽였는데, 과양생이 부부는 죽어 모기가 되었다.
- 13) 염라대왕은 강림의 용맹하고 영리한 것을 좋아하여 강림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 잡아 가는 인간차사가 되게 하였다.¹⁴⁾

과양생이 처의 악행 또한 탐욕에서 시작한다. 버무왕의 세 아들이 비단과 명주를 비롯하여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탐을 내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삼형제를 술과 음식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서슴지 않고 살인을 저지른다. 과양생이 처의 살인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며 살인에 대한 회의나 죄책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탐이 나는 물건을 갖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는 행위였을 뿐이다.

과양생이 처는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으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살인도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소유하지 못할 경우 입에 담기 어려운 욕과 저주를 퍼부었고, 끝까지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

14) 현용준, 앞의 책, 225-274쪽.

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차사본풀이>에 나타난 과양생이 처가 갖고자 한 세상의 귀한 것은 먼저 삼형제가 가지고 있는 비단과 명주 등의 값비싼 물건이다. 앞서 말했듯이 과양생이 처는 이를 취하기 위해 삼형제를 모두 살해한다. 이 외 연못에 핀 꽃, 세 구슬, 장원급제한 세 아들 등이 있다. 모두 세 아들과 관련된 것으로서 비단과 명주를 제외하고는 세 아들을 은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녀는 자신이 수장한 세형제의 동정을 살피러 연못가에 갔다가 발견한 세 꽃도 취하고 싶기에 꺾어 버리고, 청태할머니 화로 안에서 발견한 세 구슬도 귀한 것이기에 주저없이 삼켜버린다. 그런데 장원급제한 세 아들은 과양생이 처가 취하기 직전 죽어버려 소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에 과양생이 처는 삼형제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 달라고 100일이 넘게 김치원님에게 소지를 올리고 결국 염라대왕을 만나 그에게 징치되는 것이다.

제주도 본풀이에 등장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과양생이 처, 두 여성 캐릭터의 악행은 탐욕→유혹→살인→가정파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들 여성 캐릭터들의 악행의 근원은 탐욕이며, 탐욕에서 비롯된 거짓 행위는 가정파괴와 살인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캐릭터의 탐욕은 미래의 소유에 집착함으로써 지속적인 거짓과 속임수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악인형 여성신 캐릭터의 공통적 악행은 여성성을 이용한 유혹과 변신을 통해 실행되었다. 유혹하여 유혹받는 남성을 무기력화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바꿔가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다른 신에게 징치 당할 때까지 악의적 행위를 지속하였다.

악은 모든 시대나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그 성격과 현상을 달리 해서 나타나는 시대적 문화적 산물이라고 한다.¹⁵⁾ 곧, 악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불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와 사회가 규정하는 바의 행위 규범의 영향 하에 있는 사회적 소산물이란 것이다. 제주도 본풀이에서는 악의 근원으로서의 탐욕의 문제, 유혹자로서의 여성, 거짓과 살해 및 가정파탄의 문제를 전면 에 드러내 놓음으로써 탐욕, 유혹, 거짓, 살인을 통해 악인형 여성신을 형상화하고 있다. 본풀이에서 드러난 탐욕, 유혹, 거짓, 그리고 살인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악의 본질, 혹은 악의 전형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 유혹, 거짓, 살인의 요소는 오랜 시간 악인형 여성을 형상화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성 악인의 전형적 성격으로써 탐욕, 유혹, 거짓, 살인의 요소가 고전소설 등의 다른 문학 장르를 통해 확인되며¹⁵⁾ 현대의 드라마의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특징으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신적 여성의 구별된 캐릭터성을 밝혀 생명력을 갖고 활동하는 존재이며, 제공된 환경과 기회에 따라 다양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탐욕, 유혹, 거짓, 살인으로 표현된 여성 악행의 전형적 특성이 서사 과정에서 캐릭터마다 어떻게 소화되고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서사 과정에서의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성격

3.1. 통과례의 장치적 기능

<문전본풀이>에서 악인형 여성신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의 서사

15) 김수용, 최문규 외, 「악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위히너와 현대문학』 19집, 한국위히너학회, 2002. 129-140쪽.

16) 박경열,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의 형성조건과 그 의미」, 『겨레어문학』 39집, 겨레어문학회, 2007. 107-136쪽.

적 기능은 주요신의 통과의례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문전본풀이>의 서사의 진행은 제 악인과 그 악행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전개되었다기보다 추악한 악행에 맞서 그 추악함을 드러내고 진상을 파악하는 녹디생인의 활약에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 <문전본풀이>의 서사의 중심은 악인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추악하고 해악스럽나를 보이려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전본풀이>는 ‘오동나라에서의 만남과 두 여성의 갈등담’, ‘남선고을에서의 친모로 가장한 여성과 전실 자식의 갈등담’, ‘죽은 모친의 희생과 신직 좌정담’의 세부분으로 나뉘어 짜여져 있다. ‘오동나라에서의 만남과 두 여성의 갈등담’의 중심 인물은 남선비와 여산부인, 그리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오동나라로 여행 온 남선비를 만나고 그에게 시련을 주는 인물이지만 남선비의 적대자는 아니다. 보통 영웅의 일생에 대한 신화는 고향을 떠나 모험 길에 오르는 자가 주로 영웅으로 등장하고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같은 존재가 그 적대자로 등장하여 영웅의 여행길에 시련을 주고 그에 대한 극복을 통하여 입문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전본풀이>에서의 남선비는 이 신화의 주인공 신으로서의 영웅적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부인인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만나게 하여 대결케 하고, 다시 자신의 일곱 아들과 그녀를 만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인물로 그려질 뿐이다. 오동나라에서의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대결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승리로 끝난다. 그간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대조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¹⁷⁾. 장유정은 <문전본풀이>와 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아이유카

17) 김재용, 앞의 논문, 88-91쪽.

이수자, 앞의 책, 285-288쪽. (김재용의 경우 조왕신인 여산부인을 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측간신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르>의 비교를 통하여 물의 속성을 지닌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불의 속성을 지닌 여산부인의 대립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¹⁸⁾. 김재용은 자연적 상태에서의 물은 불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오동나라에서의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대결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선비의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아들의 중재역할을 통해 상황은 역전되어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죽고 여산부인은 살아나 각각 측간신과 부엌신이 된다.

여산부인:노일제대귀일의 딸 / 부엌:변소 / 불:물

여산부인:노일제대귀일의 딸 / 죽음:삶 → 아들의 중재 →

여산부인:노일제대귀일의 딸 / 부엌신:측간신

이수자는 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본풀이의 특성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신직차지에 주목하여 <문전본풀이>에서의 주인공 신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정체를 밝히고 어머니를 살려낸 후 앞문신으로 좌정하는 녹디생인이라고 하였다¹⁹⁾. 남선비와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오동나라를 떠나 고향에 돌아온 후 고향에서는 친모로 가장한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전실 자식의

이수자의 경우 조왕신으로서의 여산부인의 성격을 물과 불을 수호하는 신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김재용과 의견을 달리한다. 그러나 부엌:측간/음식을 만드는 곳: 음식을 배설하는 곳/ 깨끗한 곳:더러운 곳 등으로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상반된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는 다르지 않다)

18) 장유정, 「제주도 <문전본풀이>와 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아이유카르>의 비교고찰 -신화적 성격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집, 국문학회, 2002. 155-179쪽.
장유정,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특징-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아이유카르>와의 비교를 통해서-, 『구비문학연구』 1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2. 311-342쪽.

19) 이수자, 위의 책, 280-288쪽.

갈등이 시작되었다. 녹디생인은 어머니인 척하며 아버지인 남선비를 따라 온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었고, 칼선다리를 놓아 경계하였다. 아들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난 것을 짐작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일곱 형제를 죽이기 위해 피병을 앓고 남선비를 속여 아들을 죽이도록 마음먹게 한다. 아들을 죽이려는 부친에게 녹디생인은 자신이 산에 가서 형들의 애를 꺼내올 것이니 아버님은 나중에 자신의 것만 내어 어머니에게 드리라고 속인 후, 새끼돼지의 애를 내어 아버지에게 가져다준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남선비가 가져온 애가 돼지의 것인 줄 모르고 먹는다. 척하다가 막내에게 들켜 마침내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달아나다가 측간에서 죽는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녹디생인의 적대자로서 녹디생인과의 속고 속이기 싸움을 하고 죽고 죽이기 싸움을 겨루지만 전처 자식을 죽이는데 실패하고 거짓이 폭로되고 마침내는 죽게 되는 것이다. <문전본풀이>에서 녹디생인이 앞문신으로써 좌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대자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징치하고 서천꽃밭에 가서 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살려내었기 때문이다. 곧,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은 녹디생인을 신으로 좌정토록 하기 위한 통과의례의 장치로써 기능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그녀의 악행은 그 행위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상대신의 능력의 뛰어남을 보이는 기능적 행위이다. 특히,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은 주로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신의 능력에 따라 조정되는 상대적인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 처음 남선비를 속여 재산을 탕진케 하였고, 다음 여산부인을 속여 물에 빠뜨려 죽게 하였다. 남성인 남선비를 속이기 위해서는 여성성을 십분 이용하여 유혹하였고, 여산부인에게는 첩으로서의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큰어머니로서의 대접을 극진히 함으로써 상대방이 경계하는 마음을 놓게 하였다. 특히 여산부인이 물에 약한 점을

이용하여 목욕을 제안하고 물에 빠뜨려 죽게 하였다. 그런데 일곱 아들에 있어서는 자신 혼자의 힘으로 대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인 척 가장하고, 점쟁이로 가장하여 아버지인 남선비까지 끌어들여 제압하려 하였다. 이처럼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상대방의 능력과 약점에 따라 행동을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녀의 악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신이 그 자신의 능력에 눈을 떠서 질적 성장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2. 악의 구체화

<차사본풀이>에서의 과양생이 처 또한 <차사본풀이>의 주요신인 강림차사의 통과의례에 기능한다. <차사본풀이>의 서사는 크게 삼형제와 과양생이 처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와 강림이 중심이 된 이야기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강림이 중심이 된 이야기는 강림이 이승의 존재로서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와 저승차사가 된 이야기, 저승차사로서의 공업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형제와 과양생이 처가 중심이 된 이야기는 이승의 존재였던 강림이 저승을 다녀오게 된 동기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승의 존재로 18부인을 둔 강림은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잡아와야 하는 임무를 맡고 저승으로 들어가 염라대왕을 이승에 오도록 하고 이 후 저승차사가 되어 헉헉한 공을 세운다.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강림은 저승차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대면하고 그를 이승에 불러들이도록 동기를 부여한 과양생이 처는 강림의 이승적 존재에서 저승적 존재로의 통과의례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차사본풀이>와 유사한 함흥의 <짐가제굿>은 그 제목에서부터 악인인 짐가제가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원오는 짐가제의

행위로 인해 저승차사를 위한 굿법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하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²⁰⁾고 하였다. 짐가꺾굿이란 명칭이 짐가제의 내력을 풀이하기 때문이 아닌 저승사자의 굿법이 마련되는데 짐가제의 악행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과양생이 처의 악행과 김치원님에게의 소지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과양생이 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같이 주인공 신의 적대자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악행이 주인공 신의 통과의례의 한 과정으로써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서사 내에서 과양생이 처는 강림차사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그녀가 저지른 악행 또한 직접적으로 강림차사에게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였다. 과양생이 처의 악행이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강림차사의 존재를 탄생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성질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과 같지 않다.

과양생이 처는 강림에 의해 저승으로부터 이승으로 온 염라대왕에 의해 정치된다. 과양생이 처의 죄를 밝히고 정치하기 위해서는 저승의 염라대왕 정도의 능력을 갖춘 존재라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저승왕인 염라대왕은 과양생이의 죄를 밝히고 그 무거움을 물어 아홉으로 찢어 죽이고 모기의 몸으로 환생시킨다. 그런데 <차사본풀이> 앞에 구연되는 <헤심곡>에 의하면²¹⁾ 이승에서의 죄가 깊어 지옥의 형벌로도 죄를 다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죽은 자를 우마, 청구렁이, 흑구렁이, 청지네, 흑지네, 만물푸십새 등으로 인간 세상에 환생케 한다고 하였다. 과양생이 처의 죄의 경우 염라대왕이 그녀를 모기로 환생케 한 점을 볼 때 지옥의 형벌로도 갚을 수 없는 무거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5지옥에서 다스리는 죄의

20)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호, 한국민속학회, 1997, 223-246쪽.

21) 현용준, 앞의 책, 214-225쪽.

내용은 깊은 물에 다리를 놓는 공덕을 쌓지 않은 죄,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공덕을 베풀지 않은 죄, 목마른 자와 옷이 없는 자에게 물과 옷을 주지 않은 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죄, 동네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은 죄, 함정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지 않은 죄, 길에 막힌 사람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죄, 부모 조상에게 결대답 한 죄, 역적 도모, 강도, 살인, 고문, 도적질, 되나 말 등 남의 눈을 속인 죄, 남의 집 남편이나 부인을 우러러본 죄, 혼인 못한 죄,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죄 등이다. 이와 같은 죄의 항목은 본풀이가 연행되는 집단의 사회 윤리적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²²⁾. 곧, 과양생이 처의 행위는 이러한 15지옥의 죄의 항목을 넘어서는, 사회의 규범을 혼란케 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만드는 악행으로서 징치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천지왕본풀이> 등의 창세신화에서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긴 신격이 이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승이 혼란스럽고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해석을 보이고 있다²³⁾. 반대로 저승은 질서가 잡힌 곳이라고 하였다. 석가, 소별왕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승세계를 차지한 후 이승 세계에는 무질서가 만연하게 된다. 석가의 세상이 되면 집집마다 기생, 과부, 무당, 역적, 기생이 나는 말세가 되거나²⁴⁾ 인간이 도둑 심보를 가지고 태어나고 집마다 악질 나고 무당 나고, 물로 다니는 쇠배가 날고 기어다니는 게가 날아다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도 달도 둘이 나타나 인간이 태어 죽고 얼어 죽는 세상이 되었다²⁵⁾. 창세신화에서는 전승권역에 관계없이 모두 일월생

22) 이수자, 앞의 책, 234-239쪽. 이수자는 징치하는 죄의 내용을 통해서 큰굿 집단이 중시했던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잘 알 수 있다고 하였다.

23)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41-155쪽.

24) 김쌍돌이 구연, <창세가>,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 1930, 김현선, 위의 책, 230-235쪽.

25) 강춘옥 구연, <생긔>, 임석재, 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교부, 1966, 김현선, 위의

성과 조정의 신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일월 생성과 조정의 양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월 생성이 신들의 인세차지 이전에 일어나 하나씩 제거되어 조정된 경우와 인세를 차지한 신이 부당한 방법으로 인세를 차지하여 인세가 혼란스럽게 되거나 인세의 법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두 개씩 해와 달이 생겨 조정했다고 하는 경우이다. 일월 조정의 주체를 보면 미륵(대별왕) 혹은 석가(소별왕)이며, 선문이 후문이, 대별왕 소별왕이 힘을 합쳐 조정하기도 하였다. 인세차지 이후에 일월조정 신화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본들을 보면 북부지역과 제주지역이 뚜렷한 구분을 보이고 있다. 북부지역에서는 인세차지 경쟁에서 승리한 석가가 경쟁신인 미륵의 도움 없이 사라진 일월을 회복하고 인세의 질서를 마련한다. 반면 제주지역에서는 소별왕이 일월을 조정하지 못하고 대별왕에게 청하여 대별왕이 제3의 거인신을 통해 일월을 조정하게 하고 인세의 질서를 마련한다²⁶⁾. 곧, 이승에 무질서와 혼돈이 정리되어 질서를 마련하게 된 것은 일월을 조정하면서부터이다. 일월이 조정된 후 곧이어 인간과 귀신의 구별이 생기고 초목금수와 인간의 구별이 생겨났고 하였다. 또한 일월조정의 행위가 인간의 법도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하였다²⁷⁾. 그렇다면 두 해와 두 달의 출현은 인세의 무질서와 혼돈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신의 협력을 통해서 혹은 인세를 차지한 석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저승신인 미륵의 힘을 동원하여 징치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양생이 처는 바로 ‘두 해나 두 달’과 같은 이승의 해악적 존재이며 무질서의 존재로 파악할 수 있다. 염라대왕의 이승 행차를 통해 과양생이 처를 징치하였다는 것은 그녀가 바로 두 해에 버금가는 무질서와 혼

책, 251-285쪽.

26)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131-177쪽.

27) 강일생 구연, <베포도업침>, 김현선, 앞의 책, 421-427쪽.

돈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저승신인 염라대왕 이외의 다른 존재의 경우 과양생이 처를 징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승왕의 존재의 힘을 동원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양생이 처가 징치된 후 이승과 저승의 법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세신화가 <제석본풀이>와 연관되어 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석가가 당금애기와 결연하고 삼형제를 출생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²⁸⁾. 미륵과 석가 시대 이후 삼형제는 무조신으로 좌정하고 신과의 교통을 담당한다. 석가와 당금애기가 결연을 보이는 <제석본풀이>에 해당하는 제주도 본풀이로는 <초공본풀이>가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는 아버지로부터 각각 초감제, 초신맞이, 시왕맞이 곳을 부여받았다.²⁹⁾ 그리고 나서 삼천천 제석궁에 간혀 있는 어머니를 구해내었다. 이와 같은 일은 삼형제가 저승 세계의 존재를 이승으로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의 마지막에는 유정승의 딸이 죽어가는 장자집의 딸을 곳을 통해 살려내는 이야기가 붙어 있다. 유정승 딸의 전세남곳을 도와주는 신이 바로 삼형제인데, 이처럼 삼형제는 장자집 딸의 저승에서 이승으로의 길을 가능케 한 신격임을 알 수 있다.

[이승] --- 강림차사(차사본풀이) →

← 삼형제(초공본풀이) --- [저승]

반대로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차사는 이승적 존재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신격이다. 그런데 <차사본풀이>에도 삼형제가 등장한다. 과양생이 처가 탐내하던 것이 삼형제인데, <초공본풀이>에서의 삼

28) 박종성, 앞의 책, 55-56쪽.

29) 현용준, 앞의 책, 143-176쪽.

형제와 비교되는 점이 많은 삼형제이다. 물론 그 출생은 <초공본풀이>의 삼형제와 매우 다르며 그 능력 면에 있어서도 그들을 따를 수 없다. <차사본풀이> 삼형제는 동경국 버무왕의 일곱 아들 중의 짧은 명을 가지고 태어난 세 아들이다³⁰⁾. 대체로 동경국 버무왕의 아들로 표현되는 것은 이본마다 차이가 없지만 아홉 아들 중 '위로 셋이 죽고 아래로 셋이 죽고 남은 세 아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동경국 버무왕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대체로 부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해춘 본³¹⁾에서는 '하늘옥황 버물왕'이라 하고 염라대왕이 연못에서 구한 삼형제를 하늘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삼형제는 <초공본풀이>의 삼형제와 같이 중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 타고난 운명 때문에 절에 들어가 불공을 드려야 했다. 과양생이 처를 통해 태어난 후 삼형제는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데 그 능력은 매우 뛰어났으며 <초공본풀이>의 삼형제와 같이 15세에는 과거를 보아 나란히 장원급제하였다. 과양생이 처를 통해 다시 태어난 삼형제의 경우 생물학적인 접촉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노가단풍자지명왕 아기씨의 세 아들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한 후 <초공본풀이>와 <차사본풀이>의 삼형제는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어머니가 삼천천제석궁에 갇히게 되어 삼형제가 어머니를 찾아 나서게 되지만, <차사본풀이>에서는 삼형제가 죽고 어머니인 과양생이 처가 삼형제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초공본풀이>에서의 삼형제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저승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지만, 과양생이 처는 저승신인 염라대왕을 만날 기회를 마련하여 삼형제를 구할 뿐 스스로가 가짜 어머니임을 확

30) 현용준, 위의 책, 225-274쪽.

장주근, 앞의 책, 134-153쪽.

31) 김해춘 구연, <차사본>, 진성기, 앞의 책, 205-228쪽.

인한 채 정치되고 만다. 이 과정 속에서 강림차사는 <초공본풀이>의 삼형제와 반대로 이승의 죽은 존재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과양생이 처가 정치된 후 삼명절기일제사법과 수명법 등이 마련되며, 이승에서 삼천년이나 살던 동방삭을 붙들어 저승세계에 잡아가는 등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이승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 <차사본풀이>에서는 <초공본풀이>와의 상대적인 서사구조와 인물배치를 통해 이승과 저승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죽은 이들의 이승과 저승의 왕래에도 그 담당하는 자가 확실히 정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4.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시각적 이미지

4.1. 변신과 그림자

<문전본풀이>에서 측간신으로 좌정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오동나라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이다. 본에 따라서는 녹일국(이본), 노일국(신본)이라고 하기도 한다. 오동나라나 오동나라에서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신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남선비를 만난 후 산언덕 넘어 수수깡으로 만든 초막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에 대해 그녀가 산촌에 살면서 자연에 의존한 채취경제 내지는 문화단계가 낮은 음식문화를 영위하는 집단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기도 하며,³²⁾ 남선비가 배를 타고 가서 닿은 곳이며, 용왕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박남하본>) 보아 물의 나라로 보기도 하였다³³⁾. 그런데,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을 죽인 후 남선비를 따라 남선비의 고향으로

32) 이지영, 앞의 논문, 213쪽.

33) 장유정, 앞의 논문(『국문학연구』 7), 164-165쪽.

들어오면서 여산부인으로 가장한 채 살아간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녹디생인에게 들켜 정체가 탄로 나게 될 때까지 자신의 본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물론 전설 아들들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친어머니인 여산부인이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은 여산부인인 채 살다가 죽은 것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크게 네 번의 변신을 한다. 이 중 두 번은 자의적 변신이지만 표면적 변화에 불과하다. 반면 마지막 두 번의 변신에서는 질적 변화를 보이지만 타의에 의한 변신이다. 때문에 그녀를 트릭스터로서의 능력이 출중한 여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제 넘고 저제 넘인 가단 보난 일천할량들이 노는디, 어떤 예즈가 대홍대단 홀단지매 구실둥이 지고리에 늦인낭제 뽕낭제 늦익마직 차아놓고
원 손엔 은가락지 느단손엔 늦가락지 호고 할량들황 웃임제작 호명 오곰
춤을 추엄구나 /

남선비 찬상 올때 본 오곰춤 추단 예즈가 머리 허붕치고 모지락 치매에
치매통엔 보미 혼되 놓안 흥글흥글 흥글아 들어오멍/

씨왓 죽을 때 ㄱ저온 툄머리로 목드라지연 죽고 (노일제대귀일의 딸: 신본)

노일제대귀일의 딸 쉰대자 머리고빌 웨오느다 평평감아 (노일제대귀일의 딸: 안본)

솟을 초편 이편 제삼편을 다까놓고 니주영산 은영미술을 뽕네 저녁밥
을 지어야진 남선비아필 가져가난(여산부인: 신본)

젓대굴은 허리에 연방중에 느립네다 금줄굴은 홀모개기에 연적굴은 좇
통에 스답을 와랑차랑 호엄더니 /

저영 고운 아지망이 옹한 집에 밤을 자집네까? (여산부인: 박남하본)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먼저 여산부인으로 변신한다. 여산부인이 입던 옷으로 바뀌 입음으로써 여산부인인 척 하는 것이다³⁴⁾. 그런데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집안 살림보다는 잡기에 능하고 놀기 좋아하고 춤을 잘 추는 여성이다. <신본>에서 보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이미지는 양손에 가락지 끼고 분홍치마 입고 머리가 흐트러질 때까지 한량들과 놀다가 밥 때가 지나서 보리 한 되 치마에 담아 집에 오는데 아직 그 흥이 남아 들쭉들쭉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에 여산부인은 살림 잘 하고, 깔끔하게 음식 잘 하는 고운 부인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죽을 때 여산부인을 죽이면서 가지고 온 판머리로 목을 매어 죽는 것을 보면 여산부인은 긴 머리가 인상적인 여성으로 그려볼 수 있다. 여산부인은 결혼하기 전에도 가는 허리의 가는 손목을 지닌 아리따운 여성이었다면 결혼 후에도 고운 마음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긴 머리가 탐스런 여성이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여산부인으로서의 변신이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수는 없다.

물론 많은 입사의례에서는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써 의례의 모험에 나서거나 입사의례자의 질적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³⁵⁾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변복은 남선비를 속이는 절반의 성공을 거둘 뿐 여산부인으로서의 질적 변화는 거두지 못한다. 때문에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여산부인인 척 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캐릭터적 이미지와 성격은 극히 상반된 이중적 차이를 지닌 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녀의 두 번째 변신은 전혀 자식을 죽이기 위한 점쟁이로서의 변신이다. 아픈 척하는 그녀를 염려하는 남선비에게 문복할 것을 권한다. 그녀는 남

34) 노일제대귀일의 딸 여산부인 입은 입성 땃겨 입고 남선비 앞의 들어가서(안본)

씨왓업단 옷들 주워입고 씨왓예단 머리 좇어엿고 남선비 큰부인으로 출려오전(신본)

35) A.반 켄넬, 전경수 옮김,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2000개정판, 151-152쪽.

선비에게 처음엔 대로 노상에 먹서리를 쓰고 앉아서 점을 보는 점쟁이를 찾아가라 하고, 다음엔 종이를 바른 바구니를 둘러 쓰고 앉아 점을 보는 점쟁이를 찾아 가라고 한다. 그리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먹서리를 쓰고 앉은 점쟁이인 채 하고 거짓 점을 쳐주고, 다시 종이 바른 바구니를 쓰고 점쟁이인 척 하며 문복을 하는데, 이 때에도 남선비는 두 점쟁이가 그녀인지 알아채지 못한다(<안본>). 혹은 이본에 따라 그녀는 자루 쓴 점쟁이, 삼태기를 쓴 중, 바구니를 쓴 중인 채(<신본>) 한다. 어느 본이든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남선비를 속여 일곱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 두 차례 혹은 세 차례에 걸쳐 점쟁이 옷을 입고 점쟁이인척 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그녀의 점쟁이로의 변신도 존재의 질적 변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여산부인으로의 변신과 같이 남선비를 속여 악행을 도모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간에서 목매달아 죽은 다음에 시신은 각기 여러 가지 생물 및 무생물로 변화한다. 본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사지가 분리되어 혐오스러운 생물, 무생물들로의 질적 하강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양 다리는 측간의 드릴팡이 되고, 머리는 고래나 돛도고리(돼지 밥그릇)가 되며, 입은 솔치, 배꼽은 굴뚝이, 하문은 대전복, 소전복, 몸체는 가루로 뿔어져 이, 모기, 각다귀, 벼룩 등이 된다. 제주도의 전통 화장실 구조에서는 돼지의 우리를 아래에 두고 그 위에서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돛도고리는 돼지 우리에 놓여있는 돼지밥그릇으로써 겨나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 놓은 것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머리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장이라 할 수 있는 돛도고리로 변한 것이다. 드릴팡은 측간에 밭을 디딜 수 있도록 놓은 큰 돌 두 개다. 드릴팡 아래에는 돼지가 있고 돛도고리도 있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측간신은 측간에서 다리의 위로하고 머리를 아래로 한 채 위에서 던지는 음식 쓰레기와 음식 배설물을 담아내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마지막 변신은 측간신으로의 질적 변화이다. 혐오생물로의 환생에 바로 이어지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측간신으로의 좌정은 측간신을 혐오스러운 생물의 집합체로 상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에서 측간신으로 되기 위한 과정이 오동나라를 떠난 후 남선고을에서의 위험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측간신의 이미지는 변복을 통한 일시적인 변신, 다중적 자아, 권모술수, 혐오스러운 생물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측간신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용한다면 분홍치마를 입은 흐트러진 차림의 홍이 가득한 여성과 여산부인의 복장을 한 탐스러운 머리를 지닌 조신한 여성의 이중성을 지닌 여성 신, 임가웅변에 능한 자루 · 삼태기 혹은 바꾸니를 쓴 점쟁이, 머리는 돛도고리, 다리는 드릴팡, 몸은 이 · 벼룩 · 모기 · 각다귀 · 전복 · 굴뚝이의 집합체로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과양생이 처는 스스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 아들의 가짜 어머니가 된다. <차사본풀이> 서사에서의 과양생이 처의 존재의 변화는 과양생이 처, 비생물학적인 임신을 통한 삼형제의 어머니, 자식을 잃은 어머니, 모기나 각다귀 등으로 나타난다. 과양생이 처는 세 아들이 죽고 염라대왕을 만날 때까지 자신이 삼형제의 진짜 어머니였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염라대왕을 만나 자신이 묻은 곳에서 삼형제의 시신이 사라지고 연못에서 자신이 죽인 삼형제를 발견하고서야 자신의 아들 삼형제가 자기가 죽인 삼형제였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녀는 염라대왕에 의해 모기나 각다귀로 환생한다.

과양생이 처→삼형제의 어머니→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삼형제의 가짜 어머니→모기, 각다귀

과양생이 처의 본래의 모습은 절에서 중의 행색으로 내려오는 삼형제와

만나는 모습을 통해 표현된다.

저집이 천아와가 부엌집 7타지니 식은 밥 물즙이나 얻어먹영 가기 어쩔
네까?

설운 큰성넘니 질 먼저 과양생이 집의 먼 문간 들어사명

소승절이 배웁네다

이말들은 과양생이 각시 청천에 풀을 걸친 누엇다네 와들랑이 일어나명
이중 저중 패썸한 중이로고나 양반의 집을 몰란 왔구나 수벨컴아 수장남
아 어서나왕 위 중 귀 심어 옆짚렁 금마답에 낳 명석걸이나 흐라/

과양생이 각시가 아무말 웃이 안으로 들어간제 처녀월을 둘러쓰고 나완
맛음 좋고 뜻 조은 도련님아 어서어서 들어웁서. 안사랑도 조아지니 아
픈 다리나 쉬엿당 날날랑 가웁소서

이 말들은 식성젠 몸도 피곤허여지고 이쁜 다리나 쉬영 가젠 사랑방을
들어가 앓았더니 과양생이 각씨가 도용칠반 귀암약주 지육안주를 출려아
전(안본)

이만하면 어찌허리 죽음과 삶이 맞사리아? 과양땅이 유과하고 부가현
집은 과양상이 집이 유가하고 부가하더라 /

과양성이 각씨가 부엌 안에 달려들어 오침반상은 칠첩반상은 열두집 구
에 반상의 출리난고 출려다 가져오고 고암약주 다락주들 내여놓아 (고본)

과양생이 처의 집은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같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않은 처지는 아니다. 기와집의 부자 양반이거나, 부유하거나, 적어
도 삼형제 눈을 끝만한 먹을 것과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처지이다. <고
본>에 의하면 삼형제가 과양땅에 이르렀을 때 부유한 집을 찾아 가 음식
을 동냥하고자 하는데 그 집이 바로 과양생이 집이었다. 과양생이 처는 처
음 음식을 동냥 온 삼형제를 못매를 때려 내쫓거나 보리밥을 물에 말아

준다. 다음 삼형제의 보물을 취하기 위해 온갖 음식을 장만하고 술을 빚고 청너울을 쓰고 삼형제에게 술과 음식을 권한다. 풍성하게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모성성을 엿볼 수 있으나 그 음식이 독한 술과 안주에 치우쳐 있음을 볼 때 모성적인 면모보다는 유혹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양생이 처가 만든 음식과 독주는 죽음을 부르는 음식이다. 풍성하게 대접한다 해도 풍성한 것이 아니라 황폐한 것이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재촉하는 음식이다. 과양생이 처는 겉으로만 풍요로운 음식을 이용하여 삼형제를 유혹하고, 마침내는 삼형제의 가짜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하늘 자손인 삼형제의 어머니였다³⁶⁾는 점, 이승과 저승의 왕래에 관계된 신격의 통과의례에 기능하고 있다는 점, 신직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시험의 상반된 서사 구조에서 어머니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양생이 처는 <초공본풀이>에서의 노가단풍자지메왕 아기씨의 비교 대상이다. 노가단풍자지메왕 아기씨는 <제석본풀이>에서는 ‘당금애기’라 일컬어지는 존재와 유사하다. 당금은 ‘단금’으로 마을의 신이나 골짜기의 신을 가리키는 말로 당금애기는 마을의 수호신이면서 농경의 생산신의 성격을 갖는 여성신이다.³⁷⁾ 노가단풍자지메왕 아기씨 역시 무구나 무악기, 제기를 보관하는 당의 신이 되는 존재이다. 노가단풍자지메왕 아기씨의 원래 이름은 ‘저산줄이 벗고 이산줄이 밟아 왕대월석 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메왕 아기씨’로, 탄생시의 모습이 ‘앞이마는 해님, 뒷이마는 달님, 양어깨에 별이 솟은 듯’하다고 묘사되고 있다. 부모님인 천하 임정국대감과 지하 김진국 부인의 기대를 듬뿍 받고 태어났는데 그 모습까지 아름다운 여식이었다. 그런

36) 앞서도 말한 바처럼 <김해춘본>에서 버무왕을 ‘하늘옥황 버무왕’이라 함을 볼 때, 삼형제를 하늘자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7)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264-265쪽.

데 노가단풍자지멩왕 아기씨는 부모님이 하늘공사, 지하공사 간 동안 청너울 흑너울을 쓰고 황금땅 도단땅 주자대선생에게 권재삼문을 준 후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하고 삼형제의 어머니가 된다³⁸⁾. 그리고 그 삼형제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삼천천제석궁에 갇혀 죽음에 이르게 되며 이를 극복한 뒤 신직을 부여받는다. 이와 같이 노가단풍자지멩왕 아기씨는 잉태나 모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여성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³⁹⁾.

과양생이 처의 경우 중의 행색을 한 삼형제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비생물학적 임신을 통해 삼형제를 낳았다. 하지만 그 음식이 죽음을 재촉하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또한 낳은 아들이 가짜 아들이었다는 점에서 불임이고, 황무지이며, 재해를 의미하는 존재이다. 과양생이 처는 이승에 나타난 두 해나 두 달과 같이 홍수나 자연재해와 죽음을 일으키는 자연적인 악이며, 사회적으로는 무질서와 혼란을 의미한다. 그녀는 자연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역의 풍요와 생산을 상징하는 노가단풍자지멩왕 아기씨와는 반대의 기능을 하는 존재로 분석된다. 곧, 과양생이 처의 이미지는 노가단풍자지멩왕 아기씨와 상대적인 이미지를 지닌 여성 존재로써, 모성적 존재의 그림자 혹은 가짜 모성신과 같은 존재로 표현될 수 있는 캐릭터라 할 수 있다.

4.2. 아름다움에서 추함으로의 추락

악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선에 대응할 만한 아름다움에 비견된다. 그러나 힘을 잃었을 경우 더없이 추한 것으로써 표현된다.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과양생이 처의 마지막은 매우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표현되었다.

38) 현용준, 앞의 책, 143-176쪽.

39) 이수자, 앞의 책, 374-375쪽.

각각이 치전, 양다린 디덜팡 놓고 눈은 뻥 눌러부난 저 바당의 물미줄이
가 되고, 머리 뻥 눌러부난 저 바당이 고래가 되고, 하문은 돌란 눌러부난
저 바당이 좁복이 되고 간은 뻥 눌러부난 미가 되고 귀 돌란 눌러부난 구
쟁기가 되고 콘 늘란 눌러부난 굴묵어귀가 되고 배설을 뻥 눌러부난 물패
염, 물패기 돛줄레가 되고 치지단 남은 건 남방애에 뻥산 채로 치연 채 아
랫겐 눌러부난 배록이 되고 모기가 되고 니가 되고 체 우잇 건 눌러부난
꼭리가 되고 독다구리가 되엿수다(<문전본>, 신본⁴⁰⁾)

일곱성제 들러들어 죽은 우의 포시호저 양각을 튼인 드덜팡을 서련호
고 대가린 그찬 돛도고리 서령호고 머리터럭은 그찬 데껴 부난 저 바당의
폐가 되고 입은 그찬 데껴부난 솔치가 되고 손콧발콧 그찬 데껴부난 췌곰
벗 돌곰벗 되고 뱃똥은 그찬 데껴부난 굼벵이 되고 하문은 그찬 데껴부난
대전복 소전복이 되고 몬천은 독독 ㅅ안 허풍브람에 불러부난 국다귀 모
기 몸에 환생시겨 보내두고 (<문전본풀이>, 안본⁴¹⁾)

과양생이 부베간 아옴 각에 쉼 메여 무등여기7라 동서 레레 몰라 호
니 과양생이 부베간 아옴 각에 찻이져 찻이저단 남은 건 도구방애 노안
독독 ㅅ안 허풍브람에 불러부난, 산때도 놈의 피만 빨아 먹젠호단 과양생
이 부베간 죽언가도 필 빨아 먹저 국다귀 모기 몸에 환생호테다(<차사본
풀이>, 안본⁴²⁾)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사지가 각각 찢겨 양 다리는 측간의 드덜팡이 되
고, 머리는 고래나 돛도고리(돼지 밥그릇)가 되며, 머리카락은 바다의 폐,
입은 솔치, 배꼽은 굼벵이, 하문은 대전복, 소전복, 손툽, 발툽은 조개, 몸체

40) 진성기, 앞의 책, 120-121쪽.

41) 현용준, 앞의 책, 412쪽.

42) 현용준, 위의 책, 269쪽.

는 가루로 뿔아져 이, 모기, 각다귀, 벼룩 등이 된다. 과양생이 처 또한 소에 묶여 사지가 찢기고 남은 몸체는 가루로 뿔아 바람에 날리니 모기, 각다귀의 몸으로 환생한다. 두 여성의 사지가 찢기고, 가루가 되고, 이것은 다시 이, 파리, 모기, 각다귀 등으로 환생하는 잔인한 결말은 악의 징치라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찮은 미물과 더러운 물건으로의 환생은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선처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극악무도한 악행을 한 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의 표현이다. 이강엽은 한국 고전 서사물에 나타난 악의 성격을 사악함에 기인한 것, 불순함에 기인한 것, 무지나 나약함에 기인한 것으로 나누고 그러한 악에 대한 대처 양태를 징치, 폭로, 계도로써 살펴본 것이다.⁴³⁾ 사악함에 기인한 악은 선과 악의 변화 가능성을 두지 않는 것으로써 징치되어야 할 것이라면 나약함이나 무지에 기인한 악은 계도를 통한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불순함에 기인한 것은 그 악행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그 악을 징치하는 것보다 앞서며 악의 전모가 밝혀진 후 그에 대한 대처는 폭로에서 파멸까지 다양하게 전개된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나 과양생이 처의 악행은 이 중 사악함에 기인한 것으로써 선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한 악행을 행한 존재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담고 있다.

그런데 유혹자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추악한 것으로의 환생은 아름다움의 추락이란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과양생이 처는 여성 유혹자로서 상대 남성을 유혹에 넘어가게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남선비를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선비를 유혹할 만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과양생이 처가 삼형제를 유혹하여 그 보물을 갈취할 수 있었던 것

43) 이강엽, 「고전서사물에 나타난 악의 성격과 대처양태」, 『어문학』 90집, 한국어문학회, 2005, 270-274쪽.

도 삼형제가 속아 넘어갈 만한 모성적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원천적 사악함이 폭로되고 난 뒤에는 남선비나 삼형제가 그녀들에게 매력을 느끼기는커녕 그녀들을 죽이려 달려들고 갈가리 찢고 마침내는 다른 생물에 기생하는 모기, 각다귀, 이 등으로 변화하게 한다. 이러한 아름다움과 추락의 이미지는 두 신격 여성이 처한 환경과 기회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악인형 여성신 캐릭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서사내의 인물이 작품 외적 세계에서도 생존 가능한 캐릭터로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의 다성적인 면모가 밝혀질 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작품세계 내에서의 캐릭터 분석에 만족하지 않고 작품 외적인 캐릭터의 생명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러한 분석이 전통 캐릭터에 대한 문화콘텐츠 측면에서의 창작적 혹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원형 캐릭터의 캐릭터성에 대한 분석이 미래적 수요와 창작에 경쟁력을 부과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고 <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에 등장한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과양생이 처를 대상으로 악인형 여성신 캐릭터의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악인형 여성 캐릭터로서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과양생이 처가 갖는 전형적 악행의 성격은 탐욕, 유혹, 거짓, 살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서사 내에서의 두 여성의 악행의 성질은 차이를 두고 설명할 수 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의적 행동은 상대인에 대

웅하는 적대자로서의 행위를 의미한다면 과양생이 처의 악행은 무질서, 혼돈 등의 이승의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네 번의 변신을 한다. 여산부인을 죽인 후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여산부인인 척 하고, 점쟁이 옷을 입고 점쟁이인척 가장하고 남선비를 속인 다. 이후 여러 생물로 환생하고 측간신이 된다. 변복을 통한 불완전한 변신, 다수의 하찮은 생물의 집합체, 권모술수 등의 서사를 통해 그녀의 캐릭터 이미지를 다중적 자아를 지니고 상대자에 맞춰 다양한 악행을 범할 수 있는 존재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반면 삼형제의 가짜 어머니로써 표현되고 저승왕인 염라대왕의 이승행차를 통해 징치될 수밖에 없는 과양생이 처는 이승의 혼돈, 무질서, 황폐로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존재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상대자에 맞춰서 변신하고 악행하는 캐릭터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과양생이 처는 무질서와 혼돈, 황폐화와 같은, 시대에 합당한 악의 상징적 여성 캐릭터로써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두 신적 여성 모두 악행의 결과 모기, 각다귀 등의 하찮은 미물로 환생한다. 악의 징치라는 측면에서 두 여성의 환생은 권선징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미와 추의 측면에서 두 여성의 혐오스러운 생물로의 환생은 기회(Chance), 환경(Circumstance)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두 신적 여성의 시각적 형상화를 가능하게 한다.

참고문헌

<자료>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손진태, 『조선신기유편』, 향토문화사, 1930.
 임석재, 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교부, 1966.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赤松智城, 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上, 朝鮮總督府, 1937.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진』, 민속원, 1991.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진』, 신구문화사, 1980.

<논저>

- A.반 겐넵, 전경수 옮김,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2000개정판.
 김수용, 최문규 외, 「악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뫼히너와 현대문학』 19집, 한국뫼히너학회, 2002.
 김재용, 「<문전본풀이>의 무속 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3.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박경열,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의 형성조건과 그 의미」, 『겨레어문학』 39집, 겨레어문학회, 2007.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앤드류 호튼, 주영상 옮김,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 쓰기』, 한나래, 2000.
 이강엽, 「고전서사물에 나타난 악의 성격과 대처양태」, 『어문학』 90집, 한국어문학회, 2005.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 본 큰 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이정원, 「해악적 악인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서사적 접근」, 『古小説研究』 23집, 고소설연구회, 2007.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장유정, 「제주도 <문전본풀이>와 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아이유카르>의 비교고찰 -

- 신화적 성격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집, 국문학회, 2002.
- 장유정,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특징-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아이유카르>와의 비교를 통해서」, 『구비문학연구』 1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2.
-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호, 한국민속학회, 1997.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위키피디아 사전 [http://en.wikipedia.org/wiki/Character_\(arts\)](http://en.wikipedia.org/wiki/Character_(arts))

논문투고일: 2009.4.30 심사완료일: 2009.5.22. 게재확정일: 2009.5.26.
--

K C I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 Image of two Female Villain Deities in

Jejudobonp'uli(제주도본풀이)— Focusing on *Munjeonbonp'uli*(문전본풀이) and *Chasabonp'uli*(차사본풀이)

Kihl, Tae-suk*

In this article, I analyze characteristics of two female villain deities in *Jejudobonp'uli*(Myth of Jeju island, 제주도본풀이) by applying the concept of polyphony; the main characters are Noiljedaekuil-Ttal(노일제대귀일 딸) in the subcategory, *Munjeonbonp'uli*(문전본풀이) and Kuayangseangi-Cheo(과양생이 처) in the subcategory, *Chasabonp'uli*(차사본풀이). These characters vividly portray a female villain archetype as avaricious, treacherous, licentious, and murderous. Despite these similar characteristics in both figures, they have their own unique representation through the narratives. For instance, Noiljedaekuil-Ttal's wicked behaviors can position her as an antihero against the protagonist, Nokdiseanoin(녹디생인), one of her step sons, who transcended into a benevolent deity. On the contrary, Kuayangseangi-Cheo's behavior emblemizes chaos or disorder. More specifically, the character, Noiljedaekuil-Ttal demonstrates how her persona in the narrative can display multiple selves through frequent shape-shifting and trickeries to defeat her opponents. In the case of Kuayangseangi-Cheo, her character demonstrates a female villain deity, who prevents prosperity, but creates chaos and disorder within the narrative: she falsely pretends to be a mother of three sons, but is eventually destroyed by the god of the underworld(염라대왕).

key words

Noiljedaekuil-Ttal, *Munjeonbonp'uli*, Kuayangseangi-Cheo, *Chasabonp'uli*, female villain deities, a female villain archetype, wicked behaviors, shape-shifting and trickeries, chaos and disorder

* Yonsei Univ.